1교 1촌형 체험지원, 도 · 농 교류 활성화 팜스쿨 사업

팜스쿨 사업은?

팜스쿨 사업은 도시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배 및 농어촌 현장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농어업 · 농어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1교 1촌형 체험지원 사업' 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체험마을 간 자매결연을 통해 학교는 텃밭 등 학생들이 농작물재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과과정과 연계한 학습을 진행하고, 현장체험이 필요할 경우 체험마을을 방문하여 농어촌 생활체험, 친환경농업 · 식생활교육 및 생태 학습 등을 진행한다.

체험마을은 결연을 맺은 학교가 텃밭 등 교내 체험공간을 조성할 때 묘종, 농기구 등 농작물재배 체험에 필요한 자원 외에 농작물 재배 노하우를 지원하며, 학생들이 현장 체험을 위해 마을을 방문할 경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감 있는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구조도

도시 초등학교		체험마을
· 텃밭조성 등 교내 체험공간 조성 및 생태학습 · 묘종, 농기구 제공 등 농작물재배 지원	자매결연	· 마을 방문을 통한 농촌생활체험, 농업 교육 · 체험프로그램 제공, 학교 연계 행사 참여

언제,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나?

학교와 체험마을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시작한 팜스쿨 사업은 2010년에 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텃밭, 재배화분

금년에는 대상학교를 30개교로 확대하면서 3월부터 전면 실시된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어촌 지역 내 자연경관 · 전통문화자원 · 농산물가공시설 등을 연계한 토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구 · 교재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담당 교사들이 농작물의 생태적 특성이나 재배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농작물 재배 및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담당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현장감 있고 수준 높은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마을 소재 시 · 군의 농촌지도사가 대상 학교의 체험학습 진행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학교와 체험마을 공동 워크숍 개최 등 사전 협의활동을 의무화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구 · 교재 개발 및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였다.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일본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장으로서의 농산어촌을 활용하기 위해 학교, 지역사회, 행정이 일체가 되어 어린이 농촌체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농림수산성 주도로 문부과학성, 총무성과 연대하여 초등학생 대상으로 농산어촌 체험교육을 지원하는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에 2008년 기준 전국 공립 초등학교 21,578개교 중 약 23%인 4,984개 학교, 318,139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였다.

매년 2만3천개교의 5일 내외 농산어촌 숙박체험 활동 지원을 목표로 농산어촌에서의 숙박체험을 위한 수용시설 정비, 체험마을과 초등학교 간의 연대 협력 활동 강화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를 주요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향후 계획은?

일찍이 괴테가 말한 "자연과 가까워질수록 병이 멀어지고, 자연과 멀어질수록 병은 가까워진다."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연에서의 체험이 어린이들의 인성 함양과 정서 순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생명경시, 집단 내 소외감 · 따돌림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제기되면서 인성 함양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라는 대명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여 차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이 농어촌에서 마음껏 느끼고, 활동하고,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대상학교 및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동무들과 어울려 산과 들에서 지치도록 뛰어놀 수 있고, 그 산과 들에는 어떠한 동물들이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눈으로 볼 수 있고, 밤에는 아버지와 함께 별과 달을 보면서 '호랑이 담배 피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오손도손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경이 팜스쿨 사업을 통해 재현되기를 기원해 본다.

최국일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서기관
galaxy038@korea.kr